

탑의 진화

⑦ 중국의 불탑(4) - 누각식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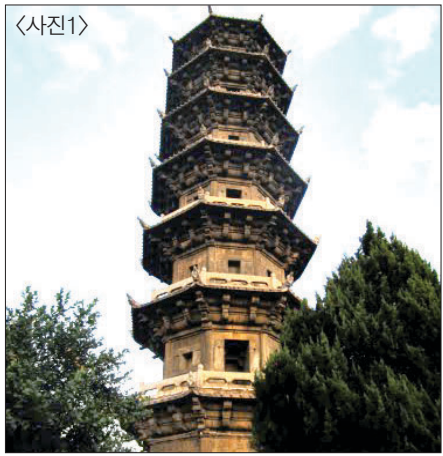
中 누각건축과 인도불탑의 결합

지난 호에는 중국에서 벽돌을 주재료로 조성한 누각식 전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돌을 주재료로 한 누각식 석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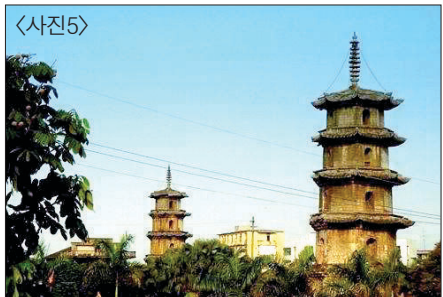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인 산서성 송복사 경내에 있는 송복사 석탑(467년)에 대하여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본 연재 제14회 참조) 그러나 중국에서 누각식 석탑은 남송시대에 가장 많이 조성되었으며, 지리적으로는 화강암(花崗巖)의 생산지로 유명한 중국 남부의 복건성(福建省)에 집중되어 있다.

화강암의 어원이 바로 이 지역의 화강(花崗)이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양질의 화강암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곳이기때문에 석재를 이용한 불탑조성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불탑으로는 서운사(瑞雲寺)의 서운탑(사진1)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이 불탑은 명(明)나라 시기인 1606년에 조성되어 10년 만에 완성되었다. '강남 제일의 불탑'이라고 부르는 서운탑은 높이가 34.6m에 이르는 8각 7층탑으로 목탑을 연상하는 구조와 정교한 조각은 참배객들의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참배객들은 계단을 이용하여 1층 탑신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으며, 입구 양 쪽에는 금강역사(사진2)가 입구를 호위하고 있다. 기반부에는 용, 사자, 사슴, 말, 토끼, 원숭이 등 동물과 연꽃 등 다양한 식물 문양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까지도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사진1〉 화강암 생산지로 유명한 복건성 지역의 대표적인 불탑인 서운탑



〈사진5〉 용화사생탑

누각식석탑, 남송시대 가장 많아 화강암 생산지 복건성에 집중 강남 제일의 불탑 서운사탑 용어, '상륜부' 아닌 '탑상부'로

유리탑, 풍화 부식 방지 효과 대보은사탑서 두정골사리 출토 남북조시대엔 금속으로도 장엄 당 이후 탑 전체 동이나 철로도

씩 조성하도록 명령하였는데, 그 지역의 제후는 새로 절을 조성하지 않고 용흥사를 현종의 연호인 개원을 응용하여 개원사로 칭하고 마치 새로 절을 조성한 것처럼 하여 수고를 덜게 되었다.

동탑인 진국탑(鎮國塔)은 처음에는 9층으로 당 함통(咸通) 6년(865)에 목탑으로 조성되었으나, 수차례 훼손과 복원을 거듭한 끝에 1250년에 목탑을 모방하여 화강석으로 재건한 것이다. 이 불탑은 8각형의 5층이며, 높이는 48.2m로 현존 석탑으로는 가장 높으며, 각 층마다 4개의 출입문이 있다. 탑신 아래에는 낮은 수미좌(須彌座) 형태의 기단(基壇)이 있고, 여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불과정인 39편의 그림으로 섬세하게 조각 되어 있어 마치 인도의 산지



〈사진2〉 서운탑 양쪽 입구의 금강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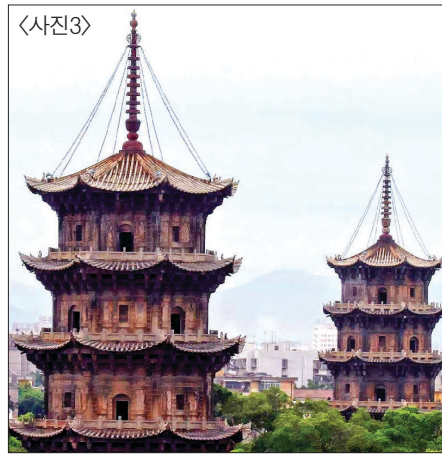


〈사진6〉 서하사 사리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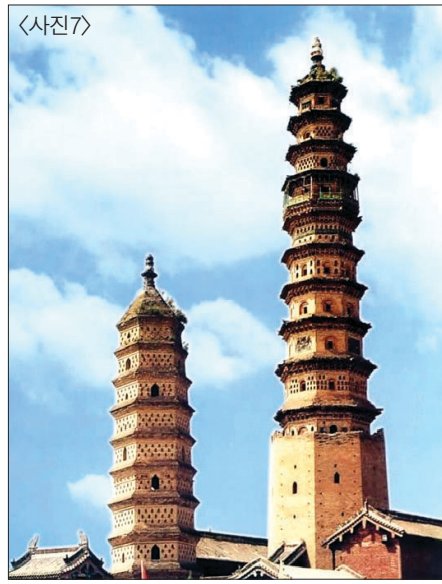
탑이나 동남아시아의 불탑의 특성을 반영한 듯하다. 또한 8개의 전각부(轉角部)에는 큰 기반부를 떠받치고 있는 역사상(力士像)이 각각 1개씩 조각되어 있다. (사진4)

탑상부는 금속을 이용하였으며, 맨 아래에는 복발(覆鉢)이라는 반구형 모양이 있다. 이것은 이미 인도 산지탑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교의 우주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반구형 돔인 안다(anda)를 재현한 것이다.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상징의 표상물인 '안다'가 중국에서는 외형적인 모습이 마치 발우를 엮어놓은 형상이라 하여 복발(覆鉢)이라고 칭하고 있다. 삼의일발(三衣一鉢)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출가수행자는 옷 3벌과 발우 1개만을 소유한다는 용어로 극단적인 무소유를 실천하는 두타행을 강조하는 불교수행의 자세를 압축하여 표현한 말이다. 이처럼 발우란 불교수행의 상징적인 법구(法具)의 하나이다.

이런 법구인 발우를 뒤집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심지어 '복발'이란 용어는 남방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지 않아 더 이상 공경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출가 수행자의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사진3〉 누각식생석탑인 개원사생탑



〈사진7〉 해회사유리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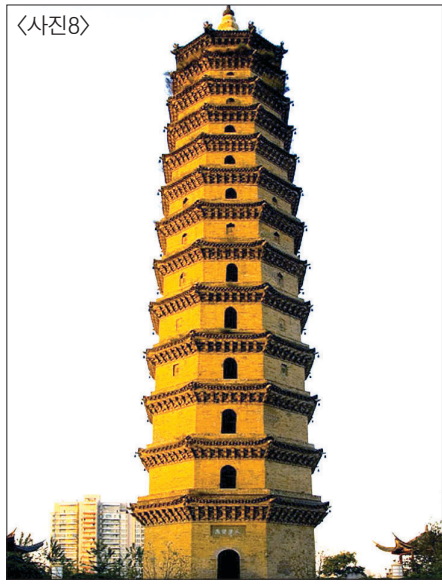
할 수 없지만 불탑구조의 용어로 복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다.

더구나 인도의 탑에서 설명하였듯이 강한 햇빛과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산(傘)인 차트라라는 공경과 권위의 상징으로 탑의 최고 상부(上部)에 올려져 있다. 즉 차트라라는 우산과 양산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부처님의 사리봉안을 공경하며, 불탑의 주인공이신 부처님이 전륜성왕보다 더욱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동근 원형모습의 차트라가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수레바퀴로 인식하여 룬(輪)이라고 부르고 있다. 파라술이 바퀴가 된 것이다. 한술 더 뜬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탑의 윗부분을 상륜부(相輪部)라고 까지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탑상부(塔上部)라는 명칭이 일반화 되어야 되겠다. 진국탑은 이러한 상륜(相輪)이 7개가 있다.

인수탑은 오대십국(五代十國)의 하나인 민(閩)나라의 초대 국왕 왕심지(王審知)에 의해 916년에 조성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왕심지가 본인의 고향인 광주(光州)에 불탑을 조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 한 스님이 나타나 광주에 탑을 조성하지 말고 천주(泉州)에 탑을 세워야



〈사진4〉 진국탑 역사상



〈사진8〉 대표적인 금속탑 우국사철탑

한다고 말하였다. 왕의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탑을 세우라는 말에 몹시 화가 난 왕심지는 부하들에게 그 스님을 참수하라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그 스님의 몸이 거대하게 두배, 세배 커져버리고 왕은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천주에 탑을 조성하니 그것이 바로 인수탑이다. 원래는 목탑으로 무량수탑이라 불렀으나, 송(宋)나라 때 인수탑으로 개칭되었고, 뒤에 석탑으로 개조하였다.

이러한 누각식 석탑은 중국 전역에 수백기가 있지만, 그 중에 선유의 용화사생석탑(사진5), 남경의 서하사 사리탑(사진6), 항주의 영은사석탑, 장악의 삼봉사석탑, 등이 각기 독특한 특징이 있다.

또한 외형적 구조는 누각식이지만, 재료는 나무, 벽돌, 석재가 아닌 유리로 조성한 유리탑이 있다. 높이가 20m나 되어 중국에서는 유리탑으로는 가장 높은 양성(陽城) 해회사유리생탑(海寺琉璃生塔)(사진7)을 위시하여, 남경의 대보은사(大報恩寺) 유리탑 등이 유명하다. 특히 대보은사는 2008년 7월 유적발굴 과정에서 '북송(北宋) 진종(眞宗) 4년(1011년)에 창건사를 증건하면서 지하궁을 만들어 아소카왕탑을 제작·안치했으며, 이 탑 안에 부

처님의 두정골 사리와 감음 사리, 제성 사리 등을 모셨다'는 글이 새겨진 비각의 발견과 함께 칠보(七寶)로 제작된 아소카왕탑을 찾아냈다. 이 탑 안에서는 금판과 은계에 담겨 있던 부처님의 두정골 사리와 안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비석도 출토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러한 유리탑의 주 재료는 유리이다. 유리는 표면에 빛을 발하는 에나멜을 칠해 구워내어 풍화나 부식을 방지하는 고급 건축 재료이다. 그 어느 재료보다도 많은 공정이 가는 유리로 불탑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함을 표현하여 영원히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겠다는 신앙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의 남북조시대에는 금속으로도 불탑을 장엄하기 시작하였다. 탑의 상부인 탑상 부분을 모두 금으로 장식하다가 수나라, 당나라 이후에는 탑 전체를 동이나 철로 조성하는 탑이 출현하기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금속탑은 광주 광화사의 생탑과 하남성 개봉의 우국사철탑(사진8), 산서성의 현통사 동탑, 함양의 천불철탑 등이 유명하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누각식 불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누각식은 중국에서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에 성형했던 고층누각의 건축양식에 인도의 불탑양식을 조화롭게 표현한 것으로 압축하여 이해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중국의 밀침식(密 式) 불탑에 대하여 알아보자. 밀침식이란 말 그대로 건물의 처마가 밀집되어 있는 양식을 말한다. 즉 탑의 지붕이 누각식에 비하여 확연하게 조밀한 탑을 말한다. 주재료는 벽돌과 석재이며, 1층은 높고 출입문이 조성되고 다양한 조각이 많이 새겨져 있으며, 2층부터는 낮은 것이 특징이다.

누각식과는 달리 내부가 채워져 공간이 없거나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는 통층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밀침식탑 조성의 역사는 한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남북조시대에 유행하게 된다. 수당시기에는 사각형의 평면구조였으나, 요금시대에는 8각형이 등장하며, 명·청 시기에는 점차 유행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동북삼성이라고 칭하는 요녕, 길림, 흑룡강 성에 밀침식탑이 집중된 것은 요와 금의 신앙적 특색과도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호에는 밀침식 탑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에는 쉽게 그 양식을 찾을 수 없는 정각식과 화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도현) 대한불교조계종연합회 회장 · 동아에일신문사 사장



석가여래부처님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입종 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Table with columns for various roles: 원로회, 승정원, 종양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호계원, 문화원, 감사원, 포교원, 기획원, 총무원,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 전북총무원, 전남총무원, 중앙위원회, 부산 제2총무원, 전국신도회회장, 중앙행정위원장, 중앙운영위원장, 중앙미술위원장, 중앙정책위원장, 중앙예술위원장, 중앙봉사위원회, 교무원, 교육원장, 부원장, 강원위원장, 석범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